

포커스-e제품

광학 90년 노하우 집약된 신제품 14종 대거 출시

올림푸스한국(주),
2009년 신제품 발표 기자 간담회 개최

○○○ 취재 | 박지연 기자 |

올림푸스한국(대표·방일석, www.olympus.co.kr)이 본사 창사 90주년을 맞아 신제품 라인업을 보강하며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문화 선도를 향한 비전제시와 함께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하이 엔트리급 DSLR 1종과 콤팩트 디카 13종을 대거 공개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명석 영상사업본부장은 “1920년 세계 최초의 현미경을 개발하고 카메라 첫 생산이후 1963년 세계 최초로 렌즈교환식 하프 프레임SLR 카메라를 개발하는 등 90년 동안 광학제품을 만들어온 올림푸스의 앞선 광학 기술력이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올해는 광학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광고와 마케팅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월에서 7월경 이미지센서(CCD)의 화면 비율을 조정할 새로운 규격인 ‘마이크로포서드(Micro Four Thirds)’를 채택한 신제품으로 기존 DSLR과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권 본부장은 “마이크로 포서드 기술을 통해 DSLR 카메라의 휴대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다변화되고 있는 DSLR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공략,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박상우 팀장의 진행으로 올림푸스 90년의 역사와 2009년 올림푸스 제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두영 팀장의 진행으로 개별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박상우 팀장은 “90년 동안 광학제품을 만들어온 올림푸스는 변화와 혁신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며 “올해 신제품을 통해 또 하나의 혁신인 마이크로포서드를 비롯, 아트필터 기능, 뷰티모드 기능을 필두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은 이미지 색상과 분위기를 조절해 다양한 분위기의



▶올림푸스한국은 2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SLR과 콤팩트 디카 등 총 14종의 2009년 전략 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아트필터’ 기능, 손떨림 보정기능을 내장한 DSLR ‘E-620’, 피사체 눈동자를 또렷하게 만들거나 피부를 부드럽게 표현해 인물사진을 찍을 수 있는 ‘뷰티모드’ 및 최대 광학 10배줌을 지원하는 콤팩트 디카 ‘뮤9000’, ‘뮤7000’, ‘뮤5000’, ‘뮤1070’, ‘뮤550WP’, 26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하이엔드 디카 ‘SP-590UZ’, 슬림 디카 ‘FE-5010, FE-3010, FE-45, FE-35, FE-2’, 방수 및 충격보호 기능을 탑재한 ‘뮤터프-8000’, ‘뮤터프-6000’ 등이다.

이 중 1230만 화소 DSLR 카메라 ‘E-620’은 손쉽게 창의적인 촬영을 가능케 해주는 ‘아트필터’ 기능과 실내 및 망원 촬영 시 안정된 이미지 촬영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손 떨림 보정기능을 본체에 내장했다. 또한 늘어난 7개의 AF 포인트를 제공하고 270도 회전하는 2중 회전축 2.7인치 LCD를 장착하고 있으며, 작은 크기(129.5mmX94mmX60mm)에 무게도 가벼워(475g) 휴대성도 높다.



▶모델들이 인물사진을 뚜렷하고 맑게 보정해 꽃보다 화사하게 촬영할 수 있는 '뷰티모드' 및 '아트필터'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장 한쪽에는 올림푸스 9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 제품이 전시됐다.

컴팩트 디카 신제품은 신개념 인물촬영·보정 기능인 '뷰티모드'를 제공, 눈동자는 뚜렷하게, 피부는 부드럽게 묘사해 준다. 뷰티모드는 간단한 모드 다이얼을 통해 설정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후 카메라에 내장된 편집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이미지를 보정해 준다. 이 밖에 최대 16명 얼굴인식 기능 외에도 인물촬영·야간촬영·스포츠촬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인물사진 최적의 촬영조합을 찾아주는 인텔리전트 오

토기능을 탑재했으며, 배경과 인물밝기를 자동 조절하는 '페이스 앤 백 컨트롤' 기능이 탑재됐다.

권명석 영상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제품은 올림푸스의 광학 90년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들"이라며 "90년 역사의 뛰어난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올해 DSLR 및 컴팩트 카메라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짚막 뉴스

“올림푸스 카메라 우주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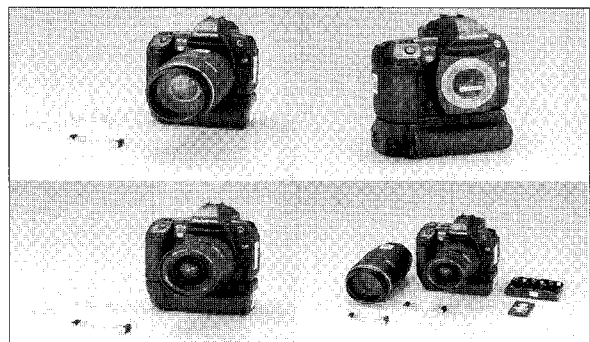
올림푸스 창사 90주년 '스페이스 프로젝트' 진행

올림푸스는 창사 90주년을 기념,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올림푸스 카메라 'E-3'로 지구를 촬영하는 '올림푸스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카메라 'E-3'는 올림푸스의 최상급 기종으로 빠른 오토 포커스와 1000만 화소의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또 이 제품은 동급 대비 소형인데다 800g의 무게, 방진방습 처리와 내구성 강한 마그네슘 바디를 갖췄다. 카메라의 LCD를 이용하면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우주공간에서도 촬영을 가능하다는 것이 올림푸스 측의 설명이다.

올림푸스는 또 주이코 디지털 렌즈용 투명 렌즈 커버와 카메라 커버를 개발, 렌즈가 파손됐을 경우 무중력 공간에 우리 조각이 떠다니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했다.

올림푸스 카메라로 지구를 촬영할 우주비행사인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소속의 고이치 와카타 박사(45)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디스커버리' 호로 타고 우주정거장



▶우주촬영용 카메라로 사용될 올림푸스의 DSLR카메라 'E-3'

으로 갈 예정이다. 발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권명석 올림푸스한국 상무는 "창립 90년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스페이스 프로젝트'는 올림푸스의 기술력이 우주에서도 증명될 만큼 우수하다는 사실을 세계인에게 확인 시키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